

# 진부한 로코 '민폐女' 등장... 시청자는 답답하다



한동안 담당하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안방극장을 휩쓸 후, 최근에는 좌충우돌하거나 남주인공에게 의지하는 여주인공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이를 두고 시청자 반응이 엇갈린다.

올해 종영작 중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김비서' 김미소(박민영 분), 시청률 20%에 근접한 같은 방송 '미스터 션샤인'의 애기씨 고애신(김태리)과 구도하나(김민정)처럼 보조적인 존재를 넘어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여성 캐릭터가 유난히 많았다.

그러나 최근 줄 잇는 신작에서는 이러한 '컬크러시'를 찾기 어렵다 보니 조금만 답답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 캐릭터가 나와도 '민폐 논란'이 불거진다.

SBS TV 월화극 '여우각시별'은 공황이라는 독특한 배경과 이재훈, 채수빈, 김지수, 이동건 등 출연진의 안정적인 연기력에 힘입어 시청률 10%(닐슨코리아 기준)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좌충우돌 스타일의 여주인공 콘셉트는 다소 비판받는다.

한여름(채수빈)은 극중 직장에서도 '인천공항 조주의 폭탄'으로 불릴 정도로 막무가내다. 실적을 쌓아 회사에

'여우각시별' '내 뒤에 테리우스' 등 막무가내·사고 유발 캐릭터 등 많아 긴장감 고조 시키지만 트렌드 맞지 않아 시청자 "공감·몰입 방해 거부감 들어"

서 인정받으려 고군분투하지만 규정도 주변 환경도 무리한 채 일을 벌이는 바람에 '민폐'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물론 여름이 이수연(이재훈)을 만나 열등감을 극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드라마 큰 줄기이기 때문에 여름의 그런 성격은 드라마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갑질 고객' 등 공황 속 각종 사건·사고와 마주하는 여름의 존재는 극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만 그러한 설정은 이미 지난 세월 드라마에서 많이 본 방식이라 진부하고, 시대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한여름의 특성 외에 '여우각시별' 내용 자체도 주인공들이 사건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극적인 과정으로만

보여주려다 보니 자연스럽기보다는 인위적이라는 평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시청률 상승세인 MBC TV 수목극 '내 뒤에 테리우스' 속 고애린(정인선) 역시 사건·사고의 핵심(?)이다.

특히 애린이 과한들에게 납치되는 장면에서 애린의 대응은 답답함을 불렀다. 김본(소지섭)이 말리는 데도 위험한 일을 벌여다 납치된 것이다.

물론 애린의 납치는 본이 블랙요원으로서 다시 한번 각성을 끌어내는 소재가 됐다.

극적으로는 완성도를 높였지만, 결국 남성 캐릭터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가 보조적 도구로 쓰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는 과거 드라마에서 흔한 방식이다.

방송가 한 관계자는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캐릭터에 대한 공감"이라며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스토리와 이른바 '민폐녀'라는 캐릭터 설정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몰입을 방해하고 전체적인 드라마의 호감도도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교수직·영주권 목적 아니다"

## 차인표, 신애라 학위 논란 해명

배우 차인표가 아내 신애라의 학위를 놓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했다.

지난달 23일 신애라는 SBS TV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현재 박사학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교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 중심으로 미국 내 한인교와 유학생들이 신애라의 '가짜 학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신애라가 공부하는 '히즈 유니버시티'(His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식인증을 받지 않아 학위가 미국과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인표는 최근 SNS에 장문의 해명 댓글을 올렸다.

차인표는 "히즈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인가를 받았고, 연방정부 허가는 획득 과정에 있다"며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만 인가하는 학교에서 학위 취득 후 한국에서 교수 생활할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데, 신애라 씨는 교수를 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인표는 '신애라가 자녀 교육 때문에 비자를 얻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제 아내가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이고 두 딸은 유학생 자녀 신분으로 체류 중인 것은 맞지만, 딸들은 기독교 사립학교에, 아들도 사립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인표는 "제 신분이 예술가 비자인 'O1 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동으로 'O3 비자'를 받아 미국 체류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 가족은 O3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저희는 미국 영주권이 획득할 생각이 없었고 신애라 씨 학업이 끝나는 내년에 모두 귀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서점가로 이어진 BTS 열기

## 표지모델 '타임' 아시아판 예약 완판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을 표지모델로 내세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이 아직 정식 국내 출간도 하기 전에 첫 예약판매를 모두 팔았다.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BTS를 표지에 올린 타임 아시아판(10월 22일자)이 이날 수입 1차 물량 1만3000 부를 완판하고 2차 물량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타임 아시아판은 지난 8-10일 사흘간 예스24 외서 부문 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예스24는 전했다.

예스24는 "아시아 각국에서 추가 입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타임은 이날 10월22일 최신포커버에 방탄소년단의 사진이 실린다는 사실을 예고하면서 '어떻게 BTS가 세계를 접수했나'라는 제목의 소개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45 닥터 365 50 나도 엄마야
0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최고의 이혼(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배드파파(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시민에게 묻는다
13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수영, 기계체조, 펜싱>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00 시사건건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모도야 놀자	00 뉴스브리핑
1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자동차동차 도박 -엄마의 자정가 2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모도야 놀자	00 토크콘서트 화통
16	00 KBS 뉴스 6 30 우리말 겨루기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1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1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19	00 KBS 뉴스 9			
20	00 가요무대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21	00 KBS 뉴스라인 30 오밤방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22	00 이웃집 찰스(재) 50 국악한마당	35 비바 K리그	20 스포츠 다이어리 35 스포츠특선 (세계프로농구 국내선발전)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1부 동부 사람이 사는 법>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짬뽕 순두부와 숙주초무침>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10 극한직업 스페셜
07:30 띠띠뽀 띠띠뽀	13:00 다큐 오늘
08:00 당동댕 유치원1~2	13:10 고양이를 부탁해
08:30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13:40 배워서 남줄(재)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4:30 몬카트(재)
09:00 뽀로로와 노래해요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15 뽀로로 뽀로로	15:15 파프리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6:15 똑딱맨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5 당동댕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17:30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퓌!퓌! 보너하니1~5
	19:00 몬카트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생애 한 번쯤은 인도 1부 천년의 황금성 자이살메르>
	21:30 한국기행 <가을이라 좋아 1부 인생은 꽃게 맛>
	21:50 EBS 다크프라이미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5일(음 9월 7일 庚辰)
<p><b>子</b> 36년생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니 처세에 신경을 써라. 48년생 아예 버려야겠다. 60년생 단독의 입장은 영향력이 약하니 함께 하도록 하자. 72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84년생 향심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가져온다. 행운의 숫자 : 87, 58</p>	<p><b>午</b> 42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 받게 되리라. 54년생 지속적인 노력과 성실함이 절실한 경로에 놓여 있다. 66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78년생 조금만 참고 있으면 결정 될 경우이다. 90년생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간다. 행운의 숫자 : 18, 01</p>
<p><b>丑</b> 37년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49년생 적기에 실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61년생 배부르게 배가 더 크겠다. 73년생 판이한 사고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85년생 내버려 두어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형상이리라. 행운의 숫자 : 40, 14</p>	<p><b>未</b> 43년생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자. 55년생 장래를 생각하면서 넓고 크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67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희소식을 접한다. 79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91년생 갈 수만 못한다면 잃고 나서 후회하리라. 행운의 숫자 : 63, 78</p>
<p><b>寅</b> 38년생 독특한 양상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50년생 정황을 정리하고 과감하게 선회해야 할 것이다. 62년생 확산 일로에 놓이면서 폭발적인 동력을 띤다. 74년생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마당이다. 86년생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47, 18</p>	<p><b>申</b> 44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좌우 된다면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56년생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68년생 확실한 결과를 보게 되는 날이리라. 80년생 인식하였다면 즉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92년생 연장선상에서 이해해도 전혀 무리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65, 28</p>
<p><b>卯</b> 39년생 앞잡이 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51년생 출입이나 진퇴의 균형이 필요하다. 63년생 집착을 떨쳐 버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효과적이다. 75년생 애초의 성향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87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0, 79</p>	<p><b>酉</b> 45년생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다. 57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야 할 국면이다. 69년생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81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 양상이다. 93년생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5, 97</p>
<p><b>辰</b> 40년생 지금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해서 주력하는 것이 지당하다. 52년생 핵심 내용에 부실함이 보인다. 64년생 마음만 먹으면 흉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76년생 복록과 약재가 섞여 있어서 중첩을 수가 없다. 88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행운의 숫자 : 23, 62</p>	<p><b>戌</b> 34년생 역사사지의 이치이니 당해 보면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6년생 최선을 다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5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림 속은 모른다. 70년생 행동해야 한다. 82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행운의 숫자 : 88, 67</p>
<p><b>巳</b> 41년생 공물여 왔던 일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올 것이니라. 53년생 파종을 했다대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에 이르리라. 65년생 무리 없이 조절할 수도 있음을 참작하자. 77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89년생 도전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74, 43</p>	<p><b>亥</b> 35년생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47년생 별 희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59년생 솜털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커진다. 71년생 사실부터 파악해 두고 보는 것이 급선무이다. 83년생 시련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6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